

5·18 왜곡대응 등 예산부활... 광주시 7.7조 추경 통과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의결

교육청 법정전입금은 제외 오늘 광주시의회 본회의서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긴축정책 기조 등의 이유로 광주시 추경 편성 과정에서 삭감됐던 5·18기념재단(재단)의 5·18민주화운동 왜곡 대응 예산이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극적으로 부활했다.

또 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법정전입금을 미편성한 광주시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1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전날 제1차 추경안 심의를 열고 광주시가 제출한 예산안 7조7770억원을 의결했다. 본예산 6조9042억원보다 12.6%(8727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번 심의에서 광주시의회는 5·18기념 마라톤대회 예산 3000만원과 본보가 지난 5월8일자 1면 "5·18 왜곡" 기승 부리는 데... 대응 인력·예산 태부족' 기사에서 지적했던 5·18역사왜곡 대응 지원비 700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이번 모니터링 예산편성으로 5·18기념재단의 온라인 커뮤니티 대상 5·18 왜곡 대응 범위는 포털 등 기존 3곳에서 8곳까지 늘어나게 됐다.

또 5·18 구묘역 시민 친화공원(성역

화) 사업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2억8000만원이 되살아났다.

광주시는 2023년 추경에서 용역사업비 3억9000만원을 편성했으나 5·18단체 등의 공론화 부족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불용 처리하고 올해 본예산에 다시 편성했다.

그러나 최근 시와 5·18단체, 시민단체들의 회의에서 망월묘지 내 열사 추모관 건립 등 쟁점 협의가 이뤄졌음에도 올해도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예산을 전액 자체 삭감했고, 시의회가 이를 지적하며 추경에 반영했다.

지방세를 거둬들인 뒤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할 법정전입금 3087억원 중 604억

원은 이번에도 제외하고 다음 추경 때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예결위원들은 광주시가 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법정전입금을 올해 본예산에 이어 추경에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법정전입금을 올해 본예산에 1100억원만 편성했고 이번 1차 추경에도 1382억원만 반영했다. 예결위원들은 앞으로는 본예산에 교부금을 전액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개설 예산 20억원과 상무대로 도심 전주 지중화 사업 12억원도 증액됐다.

평동역 타라개 정거장 설치 5000만원

은 삭감 후 시범사업 향방을 보고 재검토하고, 산업단지 셔틀버스 운행 추가 예산 6800만원은 삭감하고 지원 조례 제정 후 반영하기로 했다.

여성가족국의 청소년동아리 지원 예산 3500만원을 감액하고 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난자동결시술비 지원금 7만원을 증액했다.

교통국의 광주형 대중교통비지원(광주 G 패스) 홍보물제작비 4000만원을 감액하고 도심전주 지중화 예산 12억원을 증액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광주·전남 폭염 취약성 심각...

1면서 계속 하지만 폭염 관련 장기적 대책은 아직까지 수립되지 보이지 않고 있다.

또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지자체 폭염 대책 현황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18~2021년 폭염대책 유형별 분석 결과 전국 시군을 적극적대책형과 단기대책형, 소극적대책형으로 나뉘었을 때 광주와 전남 상당수 지역이 단기대책형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적극적대책형 지역에 포함된 수원시, 청주시 등은 광주보다 인구수가 훨씬 적음에도 평균 9.7개의 폭염 대응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중 청주는 무려 17개 사업을 진행했다. 또 교부금을 제외한 예산 역시 이들 21곳의 폭염 대책 예산 합산액은 623억2800만원이며 강원도 춘천의 경우 이 기간동안 무려 198억원을 투입해 폭염저감 시설을 구비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반면 광주와 전남은 매년 평균적으로 15명에서 30명 가량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매년 사업 진행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예산 때문이다. 전남의 올해 폭염대책 예산은 도비 17억1000만원으로 △폭염저감시설(쿨루프, 그늘막, 쿨링포그) 설치 4억2000만원 △폭염취약계층 물품지원 1억1600만원 △무더위 쉼터 냉방비지원 3억3000만원 △폭염대

책비(특별교부세) 12억1000만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장기적 폭염대책의 대표적인 폭염저감시설을 보면 △목포 쿨링포그(2개) △순천 쿨링포그(6개), 쿨루프(5개) △무안 쿨루프(61개) 등이며 나머지는 지역은 사업이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광주에도 유사하다. 광주시는 올해 폭염을 대비해 시비 5억3000만원을 배정했다. 여기에 교부금 6억 4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무더위 쉼터 3억원, 살수차 2억 5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또 광주 동구, 서구, 광산구가 폭염저감시설을 요청함에 따라 여기에 교부금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 두 지역의 예산을 모두 합쳐도 적극적인 폭염 대책을 구사하고 있는 강원도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지역의 한 폭염저감시설 설치업자는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강원도, 경기도 나아가 서울시에서까지 사업을 수주 받아 공사를 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은 최근 몇년간 신청이 한 건도 없다"면서 "사업은 둘째치고 이렇게까지 폭염 대책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싶어 솔직히 걱정이 될 정도"라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등을 고민 중이지만, 결국은 돈이 문제"라면서 "자체 예산을 편성하기엔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위해 교부세를 확보해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답했다.



광주시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0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광주시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개혁신당, 광주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개최

이준석 "호남서 정치발전 시작" 허은아, 광주·전라권 투표 1위

개혁신당이 지난 11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2차 전당대회 광주·전라·제주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에 출마한 후보들은 저마다 '서진정책'의 연결성을 강조하며 호남 지역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당원, 언론인,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투표 결과 허은아 후보가 참석

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이날 연설회는 허은·조대원·이기인·천강정·전성군 후보의 정견 발표와 후보자간 토론회, 현장 패널 투표 순으로 이어졌다.

토론회에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서진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앞으로 2년 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지역에서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전당대

회를 계기로 호남 지역에서 정치를 발전시키고, 개혁신당의 당세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는 허은아 후보가 참석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후보 5명 가운데 허 후보는 유효표 총 96표 중 31표(대학생 24표·언론인 7표)를 차지했다.

허 후보에 이어 이기인 29표, 조대원 후보 22표, 전성군 후보 13표, 천강정 후보가 1표를 나눠 가졌다.

이번 전당대회 경선 결과 1위가 당대표가 되고, 나머지 3명은 최고위원을 맡게 된다. **김은지 기자**

주관 **장성군축제위원회** 주최 **Jangseong**

제23회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장성 황룡강변 2024. 5. 24.(금) ~ 5. 26.(일)

장성 뮤직페스티벌 5. 25.(토)
나들이 5. 27.(월) ~ 6. 2.(일)